

광주시-자치구, 부단체장 인사권 충돌

광주시와 일선 구청이 부단체장(부구청장) 인사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오랜 관행”이라는 시의 주장과 “규정에 따른 정상화”라는 구청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어 3년 전 부구청장 인사권 갈등이 확대 재연될 조짐이다.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은 지난 19일 오전 조찬모임을 갖고 1월초 단행될 부구청장 인사 교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들은 부단체장을 비롯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자치단체장에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들어 부구청장은 자체 승진 인사를 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맞다는 데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은 ‘시의 부시장, 부군수, 자치구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지 23년이 지나 자치구 역량이 커졌고 분위기도 충분히 성숙해졌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등 부단체장 인사 요인이 있을 때마다 상급 관역자치단체가 부단체장을 전보 인사, 즉 내려 보내는 게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는 “구청장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구청장들의 판단이다.

서울지역 4~5개 자치구, 강원 춘천시, 대전 대덕구 등 적잖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도 선례로 들고 있다.

실제 광산구는 시와 구의 그동안의 인사 관행을 ‘수평적 교류’가 아닌 ‘수직적 갑질 인사’라고 보고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킬 계획이다.

당장 오는 28일 명예퇴직하는 윤기봉 부구청장 후임으로 구청 소속 4급 직원을 3급으로 승진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의회사무국장, 박요섭 보건소장이 불발에 오른다.

북구와 서구도 이달말 공로연수로 공석이 되는 부구청장 자리에 내부 승진인사를 단행할 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한 구청장은 “이제는 시대적 변화 흐름에 맞춰 법령 규정대로(부단체장 인사권) 정상화시킬 때라고 본다”며 “묵은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혀 자체 승진에 방점을 뒀다. 그러면서 “상생의 인사가 시대적 요구 아닌가 싶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광산구, 3급 부구청장 자체 승진 인사 강행 모 구청장 “묵은 관행 이제는 개선할 때” 시 “시점상 부적절·논의 없이 일방적”

“내년 지방선거 이후 들어설 민선 7기에서는 그같은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동구는 김병수 부구청장이 당초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6개월 연장할 계획에 있다.

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하필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연말 인사를 코 앞에 둔 시점에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5개 구청장 중 한 명은 3선 제한 2명은 시정출마 등으로 대부분 새로운 인물로 교체될 상황”이라며 “그래서 정중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

씀드렸는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시와 구청 간의 사무관 이하 하위직 인사교류가 끊기는 등 인사 병기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5개 구청 순번제로 1년에 2명씩 5급 사무관을 시로 전임받고 있는 상황에서 ‘4급 서기관을 받아 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이다.

한편 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2015년 4월 구청 기술직 4급(도시국장) 자체 승진, 신규 임용 공직자 일정기간 교육후 구 배치 등을 골자로 인사교류안에 합의한 바 있다.

서은홍 기자



동지팔죽 새알 빚기 동지를 이틀 앞둔 20일 오전 부산 부산동구 부산진역 광장에서 적십자 봉사원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직원 등이 지역 노인과 노숙인 등 300여 명에게 대접할 동지팔죽에 넣을 새알을 빚고 있다.

해경, 가거도 해상서 中어선 40여척에 200여발 실탄사격

해경이 한국 측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中어선 40여척에 실탄을 쏘아냈다.

2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날 오후 2시40분까지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98km 해상(월정선 내측 1.8km)에서 목포해경 1508 경비함정이 中어선 44척(추정)을 향해 9차에 걸쳐 공용화기 M-60 실탄 180발, 개인화기 K-2 21발 등을 쏘아 우리 해역 밖으로 쫓아냈다.

해경은 中어선 6척이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1508 경비함정 쪽으로 돌진하자 경고 방송을 한 뒤 사격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해양경비법에 따라 정선·이동 명령, 경고 방송, 수화

포·12계이지(스폰지탄) 48발 사격, 선수 쪽 기관총·소총 201발 사격, 퇴거 조치를 진행했다.

배타적경제수역에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中어선이 우리나라 단독 선박으로 돌진하며 위협(단체저항)할 경우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다.

해경은 사격 직후 3009함·1010함(목포해경 소속), 3013함(군산해경 소속)을 추가로 동원해 中어선들을 쫓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0시26분께 1508함이 순찰 도중 허가 없이 우리 해역에 침입한 中어선들을 발견했다.

불법 조업자 우리 해역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中어선 일부는 선명을 은폐하고 최장살·철망을

설치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사격 과정에 부상을 입은 해양경찰관과 中어선 선원은 없었다고 해경은 밝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전날 가거도 해상 파고가 4m 가량으로 높은 편이었다. 단정을 내려 걸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중국어 선들이 기상이 좋지 않은 점을 노리고 불법 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전북 해역을 관할하는 서해해경청이 불법 조업 단속 중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이달 4일과 지난 2월께 신안군 일대 해역에서 실탄을 사용, 中어선들을 쫓아낸 바 있다.

이용규 기자

광주 한미용실서 50대 남성 분신 시도

20일 오전 10시23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단지의 미용실 안에서 고모(83)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미용실 주인이 나서서 고씨의 몸에 붙은 불을 끄고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고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실 주인은 경찰에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소리치면 뒤 분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씨가 안정을 찾는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성능 카메라로 이웃집 촬영 대학교수

서울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A씨가 이웃집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서울 모 대학 교수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성능 카메라로 옆동과 맞은편 아파트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지난 10월말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80대 치매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A(5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자정께 안성시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어머니 B(86)씨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머니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B씨의 몸 곳곳에 생긴 멍과 핏자국을 보고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면서 너무 힘들었다”며 “이런 감정이 쌓여 화집에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B씨를 혼자서 돌봐온 것으로 보인다”며 “사인 확인을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안 잠긴 차량 턴 30대 노숙인 최고량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모(88)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3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이달 초 서울 종로 공영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휴대폰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11일 오전 11시10분께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건물 앞을 지나가다 해당 건물 주차장 관리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회사기술 빼내 다른 회사 입사한 2명 입건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회사의 기술을 빼내 다른 업체에 입사한 혐의(산업기밀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회사에 근무하던 A씨 등은 회사가 보유한 장비의 설계 도면을 훔쳐 협력업체에 입사한 뒤 이 도면으로 일본 등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사안이 이뤄지기 전 범행을 적발해 첨단 기술 보유업체의 피해를 막고 기술의 해외 유출도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길 5

광산구